

# 사찰 유물전시관 6곳 더 건립

### 문화재관리국 을 업무계획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등 10대 사업

해인사 통도사 등 8개 사찰에 이어 범어사 도갑사 등 6개 사찰이 각각 10억여원의 국비를 받아 사찰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

문화재관리국은 범어사 도갑사 쌍계사 백양사 선암사 동화사 등에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을 포함한 을 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지원에 따라 쌍계사는 총 2백9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4월경에, 백양사는 1백30평 규모의 1층건물을 올리기 전에 각각 기공식을 갖는다. 통도사는 총 2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가 끝나면 올 상반기 중에 건물 규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최근 통도사 사찰문화재 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의 국가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며 좀더 많은 사찰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여론이다.

유물전시관 건립과 더불어 문화재관리국의 올해 계획은 △문화재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관광·산업자원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발전 △천연기념물의 체계적 보호 관리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강화 △문화재의 국제교류 강화 및 남북교류 추진 △문화재관리 정보시스템 강화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근대(1900년대) 문화유산의 보존 정비 등이다.

이중 지난해에 시작돼 2002년까지 계속되는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다도해, 안동·영주, 강화 등 7개 문화권유적 종합 정비사업에는 백제문화권의 정림사지전시관 건립, 신라문화권의 황룡사지전시관 건립, 중원문화권의 법천사지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7개 문화권의 주요 유적들 가운데 선정된 곳에는 사적공원을 설립하고 무형문화재 공예품 등도 문화상품화된다. 불교문화재의 보고 경주남산 일

원은 불상 조사 및 폐탑 보수 정비가 이루어진다. 해체복원이나 현상보수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륵사지 탑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보수방안을 결정짓는다. 백제 왕궁지와 왕흥사지도 발굴 정비된다.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편람'을 만들고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도 제작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사업 등과 연계한다.

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중요문화재 보존 정비 중장기 계획을 각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방안을 강구했다. 문화재정보 DB를 구축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문화재 발굴 정보 및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존 전문인력에게 수여할 '문화유산상'을 제정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연구> <문화재연구 30년사>도 발간한다.

한·중 문화재 교류 협력책으로는 고구려 발해유적 조사연구 및 보호를, 한·일 간에는 문화재 전문가 교류와 문화재복원 공동 연구 등을 제시했다.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기구가 구성되고 해외문화재 현황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 김벌레씨 4월부터 '한국의 소리전' 에밀레종소리 완벽 녹취



음악의 마술사로 통하는 김벌레씨가 바쁜게 움직이고 있다. 그가 바쁜 뒤에는 언제나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그는 바빴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 소리전시관'에서는 에밀레종 소리를 비롯한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고 관람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확실한 불자인 그는 신라 범종소리에 특히 매료돼 '에밀레종과의 조우'라는 제목의 CD를 만들어 현장에 내놓기도 했다.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주제로 하고 그 사이사이 범패나 대금소리 등을 혼합해 음반을 만들었는데 예상대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비의 소리, 영원의 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씨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있다. 4월 1일부터 광주에서 한국의 소리 기획전을 열 계획이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 역사를 지켜온 소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질해 된 소리, 기억하기 싫은 치욕과 분노의 소리까지 온갖 소리를 모아 민족혼을 일깨운다는 야심이다. 산사의 고즈넉한 목탁소리와 영혼을 달래는 천도식의 소리들을 5·18의 뜨거운 항거가 분출시키는 소리와 대비시키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영상과 역사 상징 조형물들도 동원된 퍼포먼스 형태의 소리전을 기획하는 김씨는 날씨가 좀 더 풀리면 깊은 산사에라도 파 묻혀 전시를 구상할 각오다.

임연태 기자(ytlm@buddhania.com)

### 문화재소식

#### 월출산 도갑사 발굴 복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월출산 도갑사 발굴 복원된다.

전남 영암군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모두 5백10여원을 들여 월출산 도갑사지, 성기동 관공지, 구림·죽장마을 등 3개 권역을 묶어 '구림문화·역사 빌리지'를 조성한다.

도갑사지에는 3백43여원의 예산으로 도갑사를 발굴 복원하는 한편,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집단시설지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 해부터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도갑사는 3부전이 올해 완공되고, 사천왕누각과 회랑이 3등은 2000년 경 복원이 마무리 된다. 도선국사 기념관과 전사실은 1백여평 규모의 지하층 지상층 한옥건물로 올해말 완공될 예정이다.

김철호 군수는 "영암군은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다양화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서라도 해진 관광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명당 송운대사 자료집' 발간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키는 등 맹렬한 활약을 펼쳤던 사명대사가 역사적 인물로 새롭게 조명된다.

말양문화원은 <사명당 송운대사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사명대사 관련 부분만 발췌해 국역한 이 책은 13설적 인물이 되어 있는 사명대사를 역사상 1 인물로 환원시키고 사명대사의 참모습을 밝히기 위해 자료집이 나온 것. 사명대사의 <전 자료 88건, 사후자료 6건 등 94건의 기록> 수록한 자료집은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 대왕 실록>과 <광해군일기> <영조실록> <정조실록>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각 자료 밑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책·면수와 기재된 연월일을 밝히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꾸며져 있다.

####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 나와

거제 불교의 전래와 사찰, 폐사지 현황을 알 수 있는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가 최근 발간됐다.

거제문화원(원장 윤병수)이 펴낸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에는 거제지역에 남아있는 30개 사찰과 13개 폐사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찰로는 가장 오래된 세전암의 옛 정취를 찾아나서는 답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거제의 불교전래이야기와 거제지역에 퍼져있는 불교종단들의 개괄적인 현황도 곁들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부록으로 답사일정과 고건축 조사 방법, 고건축용어 해설, 불교용어 해설, 거제 지역 사찰 현황표 등을 담고 있다.

#### 심곡사 불좌상 강원도문화재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됐다. 조선 숙종42년(1716년)에 조성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 수 있는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을 동반하고 있어 우리나라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 등 좌우협시보살상은 본존과 같이 법의를 입고 아미타수인을 취하고 있어 보살들의 격이 높아진 조선 후기의 불교의 흐름을 알 수 있다.

### 현대판 선화 '감상'

#### 박병춘 '명상적 공간전' 4월까지 원서갤러리

한국화가 박병춘씨의 '명상적 공간'전이 4월까지 종로구 원서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지와 먹 파스텔 아크릴 등의 재료로 창작된 '새가 되고 싶은 나(사진)', '부유하는 부처', '구도자' 등 이번 그림들은 작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의식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양화의 형이상학, 먹의 정신성을 일상적 삶의 공간속으로 때내와 만든 작가의 그림은 현대판 선화(禪畵)를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02)765-2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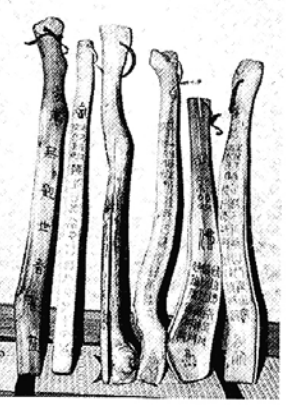
### 화제의 전시

#### 고목이 죽비로 탄생

#### 정중화 '나무죽비전' 10-16일 웅진갤러리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썩어가는 나무들을 죽비로 재탄생시킨 소연 정중화씨의 나무죽비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웅진갤러리에서 열린다.

나무의 길을 살린 자연 그대로의 나무죽비에 여러가지 서체로 부처님말씀과 조사들의 계승을 새긴 죽비 80여점, 옷걸이 100여점, 옷과 주전자 목탁 등 3백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나무 작품들은 전부 정씨가 직접 손으로 수작업한 것이다. (02)734-3851



### 신라에 범패보급 진감국사 진면목 소설로 만난다

#### 김희수씨 '소설 진감국사'

음악은 곧 도(道)였다. 진감국사에겐 그랬다. 소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진감국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다. 음악은 세상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는 이치를 깨달은 터였다.

우리나라에 범패를 처음으로 보급한 선승(禪僧) 진감국사(774~850). 한화지자 서예가인 김희수씨(52)가 펴낸 <소설 진감국사>(경서원 판)는 진감국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책이다. 진감국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사실에까지 접근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 소설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서른한 살 청년으로 당나라에 유학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교일치 사상과 26년간의 범패(梵唄) 공부과정, 귀국 후 신라 불교계에 범패를 보급하기 위한 진감국사의 노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불교음악을 승화시키고, 음성공양의 진선미를 살려낸 업적을 전하는데도 비중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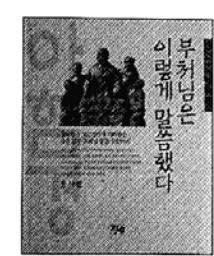
'산은 성과 함께 적연하고, 골짜기는 범패소리로 울려 퍼졌다...묵묵한 자비의 울음을 드리우고 임금들의 부름을 거부했네'라고 적고 있는 신라말 석학 최치원이 지은 쌍계사 경내에 있는 진감국사탑비(국보47호)의 비문. 이 책은 그런 진감국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같은 부처님 말씀 100가지

###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듯이 마지막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강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원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통사성 지음/ 66 배면 1만 2천쪽 / 값 8,000원 / 정음 판권

###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 『한국불교 기도성지』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무어 감을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

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니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 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은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정음판 외 지문 452면 200쪽 값 7,000원 불교서적사

불교시대사 **정음**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01-2500, 725-2800 팩스: 723-5961

###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행력으로 읽는 발원대장경, 발원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 값 5,000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스번호(02)775-8043